

Merck, 투자유공자 대통령표창

독일 Merck가 11월3일 외국기업의 날을 맞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독일계 화학 및 의약기업 Merck KGaA의 한국지사인 한국머크의 유르겐 쾨닉 대표는 11월3일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KOTRA가 주관하는 <2010 외국투자주간(Foreign Investment Week 2010)>을 맞아 열린 2010 외국기업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통령 표창(외국인 투자 유공자 부문)을 수상했다.



Merck는 1989년 한국법인을 설립한 이후 지금까지 20여년 동안 활발한 비즈니스 활동을 영위하며 국내 최초로 액정을 생산하고 연구개발 센터를 설립해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왔다.

특히, 급속히 증가하는 LCD(Liquid Crystal Display) 시장에 적극 대응하고자 2008년 한국에 140억원을 투자해 5월 평택 포승산업단지 소재 첨단기술센터를 개소했다.

Merck는 한국 디스플레이가 지속적으로 세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며, 화학소재 핵심기술 개발에 전사의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고우리 기자>

<화학저널 2010/11/04>